

제주방언의 담화표지 ‘근’과 ‘에’*

이기갑
| 목포대학교 |

국문초록

제주방언의 첨사 ‘근’과 ‘에’는 연결어미 ‘-난’, ‘-언/양’, ‘-단/당’ 뒤에 단독으로 결합되거나 두 첨사가 합해진 ‘근에’ 형식으로 결합된다. 이들은 모두 접속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분리해냄으로써 연속성을 강조하는 육지어의 보조사 ‘는’이나 ‘을랑’과 그 기능이 같다. 이런 기능의 ‘는’과 ‘을랑’을 단절의 담화표지라 부른다면 제주방언의 ‘근’과 ‘에’도 같은 기능의 담화표지라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방언에는 ‘근’과 ‘에’ 외에 육지어와 같이 ‘는’과 ‘으란’이 일부 연결어미 다음에서 단절의 담화표지로 쓰이기도 하므로, 결국 결합되는 연결어미의 종류에 따라 네 종류의 단절 표지가 쓰이는 셈이다.

핵심어: 단절의 담화표지, 연결어미, 첨사, 선행절, 후행절, 접속문

1. 서론

제주방언이 어휘나 문법의 여러 측면에서 육지어와 다르다는 사실은 기존의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임(NRF-2009-327-A00368). 이 논문을 쓰면서 강영봉, 문순덕, 고동호 세 선생님으로부터 제주방언에 관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발견되는 잘못은 온전히 글쓴이의 몫이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글은 이에 더하여 담화 차원에서 보여 주는 제주방언의 특징을 찾아보려 한다. 그동안 ‘이랑’, ‘게’, ‘이’, ‘기’(문순덕 2003), ‘양’(양창용 2009), ‘게메’(문순덕/김원보 2012) 등이 제주방언의 담화 관련 표현으로 기술된 바 있는데, 다른 방언과 달리 담화 표현의 목록이 다양하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 글에서는 제주방언의 연결어미 ‘-난’, ‘-언/앙’, ‘-단/당’ 뒤에 결합되는 ‘에’, ‘근’, ‘근에’ 등을 육지어에서 접속문의 선행절에 결합되는 보조사 ‘는’이나 ‘을랑’과 같은 기능의 담화표지로 규정하려 한다.

이 글은 제주대학의 강영봉 선생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하고 전사한 제주방언의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구술발화에 발현된 각 담화 표현들의 형태, 분포, 기능, 사용 빈도, 각 형태들의 관계 등이 기술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2. 단절의 담화표지 ‘는’, ‘을랑’, ‘서’

이기갑(2001)에서는 조사 ‘는’과 ‘을랑’이 연속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뒤에 결합되어 연속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주제 표지 ‘는’과 ‘을랑’은 한 문장을 주제(topic)와 논평(comment)으로 분리하는 구실을 하는데, ‘는’과 ‘을랑’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분리 기능은 접속문에도 적용되어 선행절을 후행절로부터 떼어내는 효과를 가져 온다. 연결어미에 의해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어차피 통사적으로 분리되므로 단절을 위한 ‘는’과 ‘을랑’의 결합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는’과 ‘을랑’이 결합되면 그 분리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는’과 ‘을랑’의 단절 효과는 극히 미미해서 직관으로도 감지되지 않는 수가 많다. 그만큼 연속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결합되는 ‘는’이나 ‘을랑’의 본래 의미가 바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의 예 (1)과 같이 ‘는’은 동시를 나타내

는 ‘-고’에는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계기를 나타내는 ‘-고’에는 가능하다는 사실은 ‘느’이 계기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1나)의 ‘느’은 결코 무의미한 요소가 아니라 화용적 또는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 (1) 가. *철수는 우산을 쓰고는 학교에 갔다).
 나. 철수는 밥을 먹고는 후식으로 다디단 커피를 마셨다.

이기갑(200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느’와 ‘을랑’이 일부의 접속문에서 연속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이들의 분리 기능이 빚어내는 부수적인 화용적 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느’와 ‘을랑’이 접속문의 선행절을 일단 단절하면,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연속적인 의미 관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결어미에 결합되어 선행절과 후행절의 단절을 강화하는 ‘느’와 ‘을랑’은 담화의 진행에 관여하는 일종의 담화표지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단절의 담화표지’라 부르고자 한다.

접속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단절 효과는 ‘느’와 ‘을랑’처럼 선행절의 연결어미에 조사를 결합시키는 방법 외에도 쉼(pause)을 두거나 담화표지 ‘말이야’처럼 독립된 단어나 구를 삽입하여 발휘될 수 있다.

- (2) 내일 비가 오면 말이야, 우리 모임을 다음 주로 연기하자.

예 (2)에서 ‘말이야’와 같은 자립형식의 담화표지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중간에 놓이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선행절에 바로 붙어서 발음되며, 일정한 쉼이 그 뒤를 잇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말이야’에 의존형식 ‘느’이나 ‘을랑’과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을 분리하는 기능이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그 통

1) 여기서 말하는 비문은 대조의 뜻 없이 순순히 단절의 효과만을 나타낼 경우를 말하며, 대조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1가)도 가능한 문장으로 해석된다.

사적 자립성 때문에, 그리고 후행하는 쉽의 도움을 받아서, ‘느’이나 ‘을랑’보다는 ‘말이야’의 단절 효과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말의 접속문에서는 다양한 표현에 의해 단절 효과가 발휘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의미론적으로 별다른 기여를 못하며, 글말에는 쓰이지 않고 입말에만 쓰인다는 사실은 이들이 담화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일종의 담화표지임을 말해 준다. 이런 담화적 요소는 모든 사람이 발화를 하면서 항상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는 아니다. 말할이에 따라, 또는 발화 상황에 따라 수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단절의 담화표지가 이러한 개인적, 담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입말로 된 발화 자료를 검토해 보면, 모든 방언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단절의 담화표지가 한국어 말하기의 매우 일반적인 수단임을 말해 준다.

단절의 담화표지 ‘느’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사용되지만 특히 충청도,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등지의 방언에서는 ‘니’, ‘나’, ‘네’ 등으로 변이되어 새로운 연결 어미의 일부로 재구조화 되어 쓰인다(이기갑 2003:124-127). 한편 ‘을랑’은 충청, 강원, 경기, 경북 등 중부 방언과 경북 지역어 등에서 단절의 표지로 쓰이되, ‘을람’ 등으로 변이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을랑’이 단절의 담화표지로 쓰일 때에는 ‘을랑’ 홀로 쓰이기보다는 ‘시’를 앞세우거나 ‘느’를 뒤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설랑’, ‘설라문’, ‘설라무네’와 같은 새로운 담화표지로서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기도 한다(이기갑 2003:146-147). 아래는 재구조화 된 담화표지의 예이다³⁾.

(3)

가. 거 반찬을 사설랑 공방을 쳤어요.[경북 예천]

나. 즈 아버지가 못 가게 해설라문 못 갔어요.[서울도박이자료집:226]

다. 으트게 돼설라무네 원님이 어떻게 중놈 아들이냐.(강원도 횡성/한림대학교 국문과 1989:173)

2) 다만 단절의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는 방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달리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3) 예 (3)의 (가)와 (나)는 ‘구비문학대계’에서 따 온 것이다.

- 라. 어디서는 중이 오더니만 말따나 목탁을 치면설라무네 시주하시오 하구서 하
고 들어와서(강원도 횡성/한림대학교 국문과 1989:173)
- 마. 그것얼 발포를 앓구서랍니는 땅속이다 넣가지구서내(충남)

여기서 ‘을랑’이 왜 ‘서’ 또는 ‘는’과 긴밀히 결합되어 새로운 단절의 담화표지로 재구조화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을랑’, ‘는’과 함께 첨사 ‘서’도 단절의 표지로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단절의 담화표지는 원래 하나로 족하지만, 애초의 표지가 의미를 잃고 탈색될 경우 새로운 표지가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담화표지의 중복이 허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서’, ‘는’, ‘을랑’은 각각 홀로 단절의 담화표지로 기능할 수 있지만 이들이 중복 결합될 때는 ‘서-을랑-는’의 차례를 지킨다⁴⁾. ‘서’와 ‘는’은 단절의 담화표지로서 대부분의 방언에 걸쳐 두루 쓰이지만, ‘을랑’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충청, 강원, 경기, 경북 등 중부 방언과 경북 지역어 등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중부 방언과 경북 지역어에서는 ‘서’, ‘을랑’, ‘는’이 중복 결합된 형태로서 ‘설랑’, ‘설라문’, ‘설라무네’와 같은 복합적인 담화표지가 나타나게 된다.

‘서’가 과연 단절의 담화표지로 쓰이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존재를 나타내던 동사 ‘시다’의 부사형 ‘서’가 문법화된 것으로서, 그것이 첨사와 되면서 연결어미 ‘-어’, ‘-고’, ‘-며’ 등에 결합되어 오늘날의 ‘-어서’, ‘-고서’, ‘-면서’와 같은 새로운 연결어미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일부의 연결어미에 결합된 첨사 ‘서’는 원래 가졌던 <존재>의 의미가 문법화하여 <지속>의 의미로 바뀌면서 <그 상태 그대로> 정도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단절의 담화표지로 기능하면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분리 효과를 드러내었을 것이다⁵⁾. 현대 국어에서도 연결어

4) 그러나 ‘설랑’이나 ‘서’는 하나의 단위로 재구조화 되면 이러한 순서를 지키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니까니서루’에서는 ‘니서루’가 단절의 표지일 것이므로 그 순서는 ‘는-서-는’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오니까’에 ‘는’의 변이형 ‘나’가 일단 결합된 뒤 여기에 다시 재구조화된 ‘서루’가 결합된 결과이다.

5) 이 점에서 제주방언은 특별한데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미 ‘-어서’의 분리성이 ‘-어’에 비해 더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예 (4)를 통해서도 확인된다(이기갑 1998).

- (4) 가. *?어제 학교에 못 갔어, 몸이 아파.
 나. 어제 학교에 못 갔어, 몸이 아파서.

그러나 이 ‘서’는 선행하는 연결어미와의 통합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오늘날 하나의 연결어미로 재구조화 되었고, 이 재구조화로 말미암아 ‘서’의 단절 기능이 그만큼 약화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어서, -고서, -으면서’에 다시 새로운 단절의 담화표지 ‘느’이나 ‘을랑’이 결합된 ‘-어서는, -어설랑’, ‘-고서는, -고설랑’, ‘-으면서는, -으면설랑’과 같은 형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충남, 충북, 강원, 함경도 지역의 방언에서는 ‘-다가나 ‘-으니까’에도 ‘서’가 붙을 수 있으므로(이기갑 2003:391, 399-400), 이런 방언에서는 당연히 ‘-다가서는, -다가설랑’이나 ‘-으니까서는, -으니까설랑’과 같은 형태가 예상되나, 실제 발화에서는 그밖에도 ‘-다가서리나 ‘-으니까시리’, ‘-으니까시리’, ‘-으니까니서루’와 같은 다양한 변이형도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서’와 ‘느’의 분포가 일치해 보이게 된다. 이미 이기갑 (2001)에서 단절의 담화표지 ‘느’이 결합될 수 있는 연결어미에 첨사 ‘서’도 결합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연결어미 ‘-고서, -어서, -어가지고서, -으면서, -으면, -다가, -으니까’에 단절의 담화표지 ‘느’이 결합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고서, -어서, -어가지고서, -으면서’에는 단절의 담화표지 ‘느’이 결합될 수 있고, ‘-다가, -으니까’는 방언에 따라 ‘서’가 결합 가능하며,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은 ‘느’이 결합될 수 있지만 ‘서’는 결합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서’가 결합되면 <동시>를 나타내는 ‘-으면서’와 형태가 같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한 바 있

6) 연결어미에 결합된 ‘서’가 보이는 단절 효과는 어미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다. 즉 ‘서’가 선행하는 어미에 통합되어 단일한 어미로 재구조화된 경우는 ‘서’의 단절 의미가 약화되고 ‘서’가 앞선 어미와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서’의 단절 효과는 자연히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서’의 단절 효과의 크기는 ‘-고서 > -어서 > -면서’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이처럼 ‘서’와 ‘는’의 분포가 거의 같다는 사실은 곧 ‘서’와 ‘는’의 담화적 기능이 같을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뿐만 아니라 ‘서’가 연결어미 ‘-고’에 결합되어 ‘-고서’가 되면 일반적으로 <동시>보다는 <계기>의 의미 해석을 낳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는’이 결합한 ‘-고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역시 ‘서’와 ‘고’가 단절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공유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3. 제주방언의 ‘서’, ‘으랴’, ‘는’

3.1. ‘서’

제주방언은 육지의 다른 방언과 달리 ‘서’가 단절의 담화표지로 쓰이는 예가 없다. 그래서 표준어 ‘-어서’, ‘-고서’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의 어미 ‘-언/양’에는 ‘서’가 붙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표준어 ‘-으면서’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의 형식 ‘-으멍’에도 ‘서’가 붙을 수 없다. 물론 토박이들의 구술발화 자료에는 ‘-어서’, ‘-고서’, ‘-다가서’ 등이 쓰이는 예를 발견할 수 있으나 이것은 표준어의 영향 때문이다⁷⁾. 제주방언에도 표준어의 조사 ‘에서’에 대응하는 형태로 ‘에서’나 ‘되서’가 존재하므로 첨사 ‘서’가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서’가 연결어미에 결합되어 단절의 담화표지로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육지어와 다른 점이다.

제주방언에서 단절의 담화표지 ‘서’가 연결어미에 결합되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제주방언 고유의 담화표지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7) ‘-다가서’는 표준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형태인데 제주방언에서 확인된다. 제주방언의 고유한 형태는 ‘-단’이나 ‘-당’이므로 ‘-다가서’는 표준어의 영향을 받은 ‘-어서’나 ‘-고서’에서 유추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 김좌수가 집의 잇다서는 ...(제주설화집성(1):813)

예를 들어 ‘-언’과 ‘-영’의 경우, ‘서’를 대신해서 ‘에’나 ‘근’과 같은 제주방언 고유의 담화표지가 따로 존재하여 ‘-언에’, ‘-어근’, ‘-영은’, ‘-어근에’, ‘-영은에’, ‘-영근에’와 같은 다양한 결합 형식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둘째는 제주방언의 ‘-으멍’ (= -으면서)은 육지어와 달리 단절의 담화표지와 결합되어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유의 담화표지 ‘에’나 ‘근’이 결합된 ‘*-으멍에’, ‘*-으멍근’, ‘*-으멍은’과 같은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고유의 담화표지도 쓰이지 않는데, 하물며 ‘서’가 결합될 이유는 더욱 없을 것이다. 만약 ‘-으멍서’와 같은 형식이 쓰인다면 그것은 표준어의 영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2. ‘으란’

보조사 ‘으랑’은 제주방언에서 ‘으란’과 ‘이란’으로 수의적 변동을 보이며 쓰이는데, ‘으란/이란’은 다시 ‘으랑/이랑’으로 변동하여 쓰이기도 한다. 이 ‘으란/이란’은 명사 다음에 붙거나 명사에 붙은 격조사 다음에 붙어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격조사 ‘으로/을로’, ‘에’, ‘에서’ 등에 ‘으란/이란’이 결합되어 쓰이는 용법은 현평효/강영봉(2011)에 일부 제시되어 있다.

제주방언에서 ‘으란/이란’은 일부의 연결어미에 붙어 담화표지로 기능한다. (5)는 ‘으란’이 연결어미에 바로 붙는 경우이고, (6)은 ‘서’와 결합한 ‘설란’ 형식으로 붙는 경우이며, (7)은 ‘설란’에 다시 ‘는’이나 ‘으란’이 중복 결합하는 경우이다.

(5)

가. 예청 년은 어디 동면에 가 가지고란 아무 것도 어선... (=부인은 어디 동면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없어서)[제주설화집성(1):817]

나. 그날은 어두워서 노리다릴 해 가지꼴란 고팡에 달아맸다 말이어. (=그 날은 어두워서 노루 다리를 해 가지고는 광에 매달았다 말이야.)[제주설화집성(1):

837]

(6)

- 가. 그날 상주를 잡아다가 총배로 야가지를 걸어가지고 큰 폭낭에 돌아메 가지고 설란 죽여 버렸어.(=그날 상주를 붙잡아다가 총배로 모가지를 걸어서 큰 팽나무에 달아매서는 죽여 버렸어.)[제주어사전:44]
- 나. 보내연 훈 삼년 잇다가설란 그 거북이 스제(使者)보고다 말흐는다(=보내어서 한 삼년 잇다가는 그 거북이 사자보고 말하는데)[제주어사전:118]
- 다. 역불 할망 울어선 창고 하나 지어설란 돈을 꼭 담아 잇이니(=일부러 할머니 위해서 창고 하나 지어서는 돈을 가득 담아 있으니.)[제주어사전:390]
- 라. 도적놈들이 모어들어설란 이제 소도 잡아먹고 [제주설화집성(1): 889]
- 마. 저 어른광 따라가서 사냥을 해설란 노리를 훈 머리 잡으면 (=어른이랑 따라가서 사냥을 해서는 노루를 한 머리 잡으면)[제주 설화집성(1):826]
- 바. 메뉴리 떡 앓혀 놓고설란. [제주설화집성(1): 813]
- 사. 일흐명 입을 옷 훈 불 딱 싸 가지고설란 [제주설화집성(1):820]

(7)

- 가. 네가 그까짓 힘을 가지고설람으란 웨지에 오라서 좌지우지홀려고 흐느냐[제주어사전:44]
- 나. 그 매오름 모양으로 앉아설란은 요디 아갓다가 [제주설화집성(1): 803]
- 다. 점잖은 사람이 잇다가 들어와 가지고설람은 [제주설화집성(1): 862]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으란’이 결합하는 연결어미가 제주방언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어서’, ‘-다가서’와 같은 형식이라는 점이다. 표준어의 ‘-어서’나 ‘-다가’에 대응하는 제주방언형 ‘-엔/양’, ‘-단/당’에는 결코 ‘으란’이 결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방언에서 ‘으란’이 담화표지로 쓰일 경우,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첨사 ‘서’가 포함된 ‘-어서’나 ‘-다가서’ 등에 제한되어 쓰인다. 실제 이렇게 쓰이는 ‘으란’의 사용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인 강영봉(2006-2012)의 약 28시간 동안의 구술발화 자료에서 ‘설란’의 예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주도의 설화를 모아 집성한 《제주설화집성(1)》의 몇 제보자들이 이런 형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예

(5)-(7)이 모두 그런 경우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방언에서 ‘으란’이 접속문의 선행절을 후행절과 분리시키는 기능을 맡는 담화표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분포는 오직 표준어의 영향을 받는 일부의 연결어미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으란’이 왜 이러한 분포를 갖는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가설로서 ‘설란’이 육지로부터 들어온 형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으란’이 제주방언의 토박이 형이므로 ‘설란’을 모두 육지에서 들어온 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설화 자료에는 ‘어설란’이나 ‘다가설란’ 외에 ‘어서는’이나 ‘다가는’, ‘다가서는’ 등의 예가 확인되므로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사용되는 연결어미에는 ‘으란’과 ‘는’이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셈이다.

3.3. ‘는’

제주방언에서 보조사 ‘는’이 연결어미에 결합되어 쓰일 경우 단절의 담화표지보다는 원래의 의미인 대조의 기능을 유지한 채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⁸⁾. 아래 예 (8)은 《제주어사전》과 강영봉 선생이 조사한 구술발화 자료에서 확인된 것으로서 ‘는’이 조건을 뜻하는 경우이다.

(8)

가. 느 그거 가정은 아니다.(=너 그것 가져서는 안 된다.)《제주어사전》

나. 는 그거 보양은 안다.(=너는 그것 보아서 안 된다.)《제주어사전》

다. 경 혜영 여늘 멘드러야지. 뜯 거 부짱은 이 춤너넨 띠울 쭈가 언는거. (=그렇게 해서 연을 만들어야지 다른 거 붙여서는 이 방패연은 띄울 수가 없는 거.)

8) 표준어의 영향을 받은 제보자의 경우 담화표지 ‘는’을 쓰는 수가 흔하다. 아래 예는 단절의 담화표지 ‘는’이 표준어의 연결어미 ‘니까’에 결합하여 ‘니’로 실현됨을 보여 준다. ‘니까’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의 토박이 표현은 ‘난’인데, ‘난’은 결코 ‘는’ 또는 이의 변이형 ‘니’와 결합하지 않는다. 오직 ‘에’와만 결합할 뿐이다.

(예) 그 이젠 거북이가 나오란 보니까니(제주설화집성(1):801)

(강영봉 2012:65)

그러나 경우에 따라 연결어미 ‘-영’ 다음에 단절의 담화표지 ‘는’이 결합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다. 예 (9)가 이런 경우이다.

(9) 십이월 드렁은 뭐 벨로이 허는 게 어십주기. 그디선 그뻐. (=십이월 들 어서는 뭐 별다르게 하는 것이 없습지요. 거기서는 그뻐.)(강영봉 2012:28)

예 (9)의 ‘드렁은’은 누가 보더라도 ‘드렁’에 단절의 담화표지 ‘는’의 변이형 ‘은’이 결합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제주방언에는 고유의 담화표지 ‘근’이 따로 있고 이 ‘근’은 /o/ 다음에서 ‘은’으로의 수의적 변동을 보인다. 따라서 (9)의 ‘드렁은’을 ‘드렁’에 ‘근’의 변이형 ‘은’이 결합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방언에서 단절의 담화표지 ‘는’은 연결어미 ‘-오민’을 제외하면 결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안’이나 ‘-영’에는 결코 단절의 담화표지 ‘는’이 결합되지 않는다. 결합된다면 그것은 표준어의 영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9)의 ‘드렁은’에 포함된 ‘은’은 ‘는’의 변이형이 아니라 ‘근’의 변이형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다. 물론 후술되겠지만 ‘근’은 그 기능에 있어서 표준어의 ‘는’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드렁은’의 ‘은’을 ‘근’과 ‘는’의 변이형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그 결과는 같다.

한편 연결어미 ‘-오민’(=-오면)은 다른 연결어미와 달리 ‘근’이나 ‘에’와는 결합되지 않으며 오직 ‘는’과 결합된 ‘-오민은’ 형식만 빈번하게 확인된다. 아래 예는 강영봉(2012)의 것이다.

(10)

가. 계난 이월뎨 드렁 허기 시자키미는 이제 봄 농스힐 준비 농초네서는 다 허곡.
(=그러니까 이월 들어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봄 농사 할 준비 농촌에서는 다

하고)(11)

- 나. 쌀, 예, 보리, 보리쌀 쪼끔 그레 감자 그 보리쌀 깨어, 소머 낭깨어가미는 감자 드리쳐그네. (=쌀, 예, 보리, 보리쌀 조금 넣어서 그리로 고구마 그 보리쌀 끓여, 솥에 넣어서 끓여 가면 고구마 들이뜨려서)(125)
- 다. 또 호, 호는 거는 뒤싸불미는 쏘고브로 아멩 해도 몰르는 거난 건 흠쩌구리. 뒤싸는 저구리엿 흠쩌구리. (=또 호, 호는 것은 뒤집어버리면 속으로 아무리 해도 모르는 것이니까 건 흠저고리. 뒤집는 저고리라고 흠저고리)(188)
- 라. 꿩양호지 아니민 처비영으네 멩지가 영 처불미는 현 멩지 담쥬게. (=고이하지 않으면 처버리면 멩주가 이렇게 처버리면 현 멩주 같지)(190)

따라서 ‘-언/영’, ‘-단/당’, ‘-난’ 등이 고유한 담화표지 ‘근’이나 ‘에’와 결합하여 단절의 효과를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연결어미 ‘-으민’은 육지어와 같이 ‘느’에 의해 단절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방언은 ‘으란’, ‘느’, ‘근’, ‘에’처럼 다양한 단절의 담화표지가 사용되며, 각각의 단절의 담화표지는 연결어미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주방언의 ‘근’

4.1. ‘으라근’

제주방언에서 ‘근’은 조사 ‘으란’이나 일부의 연결어미에 결합된다. 현평효/강영봉(2011)에 의하면 조사 ‘으란’에 결합된 예로 ‘라근’, ‘랑근’, ‘라근에’, ‘랑근에’, ‘랑은에’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아래 예 (11)이 이를 보인다. (11나)에서 보듯이 ‘근’은 /o/ 다음에서 ‘은’으로 수의적인 변이를 보인다.

(11)

- 가. 느라근/늘라근/늘랑근) 이되서 놀암시라.(=널랑은 여기서 놀고 있어라.)

나. 느라근에(/늘라근에/늘랑근에/늘랑은에) 이디 시라.(=닐랑은 여기 있어라.)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을라/을랑’은 대명사 ‘느’에 결합하여 표준어 ‘닐랑’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 다시 ‘근’이 결합되어 ‘느라근/늘라근/늘랑근’을 형성하는데, 표준어 대응형 ‘닐랑은’과 비교해 보면 ‘근’이 보조사 ‘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에’가 결합하여 ‘느라근에/늘라근에/늘랑근에/늘랑은에’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에’의 결합에 따른 의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만약 ‘을라근/을랑근’을 ‘을랑’과 ‘근’의 결합으로 볼 경우, 그리고 ‘근’을 표준어의 보조사 ‘느’와 기능이 같은 것으로 볼 경우, ‘을라근/을랑근’은 보조사 ‘을랑’과 ‘느’이 겹쳐 사용되는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중복 사용은 다른 방언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표준어 ‘을랑’ 또는 ‘일랑’에 대응하는 전남방언형은 ‘이랑’인데 이것은 흔히 보조사 ‘느’와 결합하여 쓰인다.

(12) 쌀이랑은 내가 다 풀아 났다. (=쌀은 내가 다 팔아 났다.)

이때의 ‘느’는 수의적으로 결합되는 것이지만, 그 결합 자체는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랑’의 의미가 약화된 탓일 것이다. 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능이 같은 ‘이랑’과 ‘느’가 공존할 때 어느 하나가 세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경우는 ‘이랑’이 ‘느’에 밀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랑’의 세력이 약화되면, 같은 기능을 가지면서 세력이 강한 ‘느’가 다시 결합되어 ‘이랑’이 표현하려던 주체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게 된다. 제주방언에서 ‘을랑’ 뒤에 ‘근’이 결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⁹⁾.

한편 제주방언에서 ‘근’이 다른 조사에는 결합되지 않고 오직 ‘을랑’에만 결합되는 것도 ‘근’이 ‘을랑’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같은 의미를

9) 이런 이유로 ‘을랑’과 ‘느’가 결합할 때 그 결합 순서는 언제나 ‘을랑은’이며 그 반대인 ‘느을랑’은 실현되지 않는다.

갖는 두 형태 중의 하나가 약화되면서 다른 하나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덧붙은 것으로 본다면 이런 분포상의 제약은 쉽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근’이 ‘을랑’과 결합할 때의 의미는 주제나 대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형적인 단절의 담화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이 연결어미에 결합되는 경우에는 단절의 담화표지로 기능하므로, ‘을랑’에 결합되는 ‘근’이 주제나 대조를 나타내는 것은 단절의 담화표지로서의 용법을 설명해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4.2. ‘-어근’과 ‘-다근’

‘근’은 조사 ‘을랑’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어’와 ‘-다’ 뒤에서도 결합될 수 있다. 연결어미 ‘-어서’는 제주방언에서 ‘-영’과 ‘-안’으로 쓰이며 ‘-어’로는 쓰이지 않지만 ‘근’이 결합될 때에는 ‘-어’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다가’는 제주방언에서 ‘-단’과 ‘-당’으로 쓰이지만 ‘근’이 결합될 때에는 ‘-다’로 쓰인다. ‘근’이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근’과 ‘에’의 결합 관계

	근	은	에	근에	은에
-어	o	x	x	o	x
-언	x	x	o	x	x
-영	o	o	x	o	o
-다	o	x	x	o	x
-단	x	x	o	x	x
-당	o	o	x	o	o
-어다	o	x	x	o	x
-어단	x	x	o	x	x
-어당	o	o	x	o	o

기본적으로 위의 <표 1>은 현평효/강영봉(2011)에 제시된 예와 강영봉(2012)에서 확인된 구술발화의 예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제주 토박이들에 따르면, ‘근’이나 변이형 ‘은’이 연결어미에 단독으로 결합되는 경우는 노인들 발화에서

드물게 들을 수 있는 반면, ‘에’가 덧붙은 ‘근에’나 ‘은에’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 강영봉(2012)와 같은 실제 발화된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어근’, ‘-영근’, ‘-영은’, ‘-다근’, ‘-당근’, ‘-당은’, ‘-어다근’, ‘-어당근’, ‘-어당은’과 같은 형태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신 ‘-어근에’, ‘-영은에’, ‘-다근에’, ‘-당은에’, ‘-어다근에’, ‘-어당은에’ 등이 확인될 뿐이다. 이처럼 ‘-근’형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근에’에 밀려 퇴조하는 형태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평효/강영봉(2011)에는 ‘근’이 홀로 결합된 (13)이 예로 제시되어 있다.

(13) 이거 먹어근/먹영근 가라(=이것 먹고서 가거라.)

(13)처럼 비록 ‘근’ 단독으로 결합한 형태의 사용 빈도가 매우 낮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 종류의 연결어미 ‘-어’, ‘-다’, ‘-어다’에 결합될 수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연결어미 ‘-어’의 경우, 제주방언은 ‘-영’과 ‘-언’의 두 형태로만 쓰이는데, ‘근’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어’와 ‘-영’일 뿐 ‘-언’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근’은 ‘-다’와 ‘-당’에만 결합될 뿐 ‘-단’은 결합이 불가능하다. ‘-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언’과 ‘-단’에는 ‘근’이 결합되지 못하지만 ‘에’는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근’과 ‘에’는 그 분포가 상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근에’처럼 두 첨사가 함께 결합되기도 하여, 그 분포의 상보성이 부분적이기는 하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자. 첫째, ‘근’은 왜 홀로 쓰이지 않는 형태 ‘-어’에 결합되는 것일까? 이기갑(2003)에서는 ‘-어’가 ‘-언’과 ‘-영’의 분화가 일어나기 전의 옛 형태임을 가정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의미적으로 ‘-어근’과 ‘-영근’은 동일하므로, ‘-언’과 ‘-영’이 분화되기 이전의 옛 형태인 ‘-어’에 ‘근’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¹⁰⁾. 그렇다면 ‘근’은 매우 오랜 시기

10) 이와 달리 강정희(1987)은 ‘-언’이 첨사 ‘근’과 결합할 경우 ‘-어’로 바뀐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만약 ‘-언근’이 ‘-어근’으로 되었다면 예 (11)처럼 후행절의 사태가 발화 당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문제이다. 제주방언에서 이러한 경우 선행절은 ‘-언’이 아닌 ‘-

부터 ‘-어’에 첨가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추정에 따르면 ‘-엿근’은 ‘-어근’에 비해 나중에 생긴 형태 결합인 셈이다. 같은 추정이 ‘-다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근’이 연결어미 ‘-엿’, ‘-당’에는 결합되지만 ‘-안’, ‘-단’에는 결합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안’은 흔히 ‘-엿’과 대비되어 절대시제로서의 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간주되었다(이기갑 2003:377). 이 점은 ‘-단’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근’은 과거시제를 품고 있는 어미에 결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이런 시제적 요소가 없는 연결어미 ‘-난’에도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과연 시제가 제약의 조건으로 작용하는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결합의 제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겠다.

‘근’이 연결어미에 덧붙음으로써 어떠한 의미가 첨가될 수 있는가? 이미 4.1에서 ‘근’이 표준어 ‘-느’와 동일한 기능을 지닌다는 점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연결어미 ‘-당’과 ‘-당근’, ‘-당은’, ‘-당은’에 대한 현평효/강영봉(2011)의 기술을 통해서도 연결어미에 결합되는 ‘근’이나 ‘은’이 표준어의 ‘-느’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현평효/강영봉(2011)에서는 ‘-당근’, ‘-당은’을 ‘그 동작이 계속되면 뒤에 좋지 못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뜻으로, 앞 동작을 경계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은’은 ‘앞의 동작을 더욱 세게 경계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기술에 의하면 ‘-당은’은 ‘-당근’이나 ‘-당은’의 의미를 강조하는 차이가 있을 뿐 앞의 동작을 경계하는 뜻을 나타내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현평효/강영봉(2011)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기실 표준어의 ‘-다가느’이 보이는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연결어미 ‘-다가’에 보조사 ‘-느’이 덧붙으면 조건의 의미를 강조한다¹¹⁾.

엿’이 쓰이기 때문이다.

11) 물론 ‘-다가느’의 후건이 항상 좋지 못한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는 전교에서 일등하겠다’처럼 긍정적인 결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제주방언의 ‘-당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4)

- 가. ?그렇게 공부하다가 대학 못 가.
- 나.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대학 못 가.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다가’만으로도 조건을 나타낼 수 있지만 ‘는’이 결합됨으로써 조건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물론 주제 표지 ‘는’이 본질적으로 조건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일 것이다¹²⁾. 따라서 제주방언의 ‘-당근’, ‘-당은’이 표현하는 의미는 표준어 ‘-다가는’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함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근’이나 ‘은’은 결국 표준어의 보조사 ‘는’과 같다는 결론이 된다.

한편 제주방언에서 ‘-당근’의 ‘근’은 선행하는 연결어미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절의 담화표지로 쓰이기도 한다. 강영봉(2012)에서 ‘-당근’의 용례는 찾을 수 없었지만, 대신 ‘-당은에’의 ‘은에’에서 이런 용법이 확인된다.

(15)

- 가. 예 으페서 저 어른더리 지경 차는 거 보당으네 그치루커른 싹지 말렌허곡. (= 아 옆에서 저 어른들이 지켜서 차는 거 보다가 그렇게 하면 싸우지 말라고 하고.)⁵³⁾
- 나. 흥문 지비 오지 못터난 고사리 꺼끄레 간 사르미 굴메드리명 어버네오 (웃음) 오당으네 알르레 부리쟁 허민 아이고 흥문 댜 주거가곡, (= 사뭇 집에 오지 못하니까 고사리 꺾으러 간 사람이 갈마들며 업어서오 (웃음) 오다가 아래로 부리려고 하면 아이고 사뭇 몽땅 죽어가고)

‘-다가’에 붙어 조건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도 다른 연결어미에 결합되어서는 별다른 뜻이 없는 단절의 담화표지로 기능하듯이, 제주방언의 첨사 ‘근’도 ‘-당’에 붙어서는 조건을 나타내지만 다른 연결어미에 결합하여서는 마찬가지로 단

12) 예를 들어 ‘-어서’에 ‘는’이 결합되면 ‘-어서’에 없는 조건의 의미가 표현된다.

(예) 가. *이렇게 죽어서 안 돼.
 나.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절의 담화표지로 기능한다. 현평효/강영봉(2011)에서는 이를 ‘강조’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엉근’의 의미를 ‘연결어미’-‘-엉’의 뜻을 더 세계 나타내는 ‘연결어미’ (글쓴이 밑줄)라고 풀이하는 것이 이를 보여 준다. 이러한 강조의 효과는 연결어미에 보조사 ‘는’이 붙을 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다. 단절의 담화표지로서의 ‘는’이 연결어미에 결합되면 선행절이 일단 심리적으로 맺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느끼기에 따라서는 해당 연결어미가 더 두드러지게 느껴진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주방언에서 ‘근’은 <조건>과 <강조>의 두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점에서 표준어를 비롯한 육지의 다른 방언의 ‘는’이나 ‘을랑’과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방언의 ‘근’을 강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절의 담화표지로 간주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¹³⁾

5. 제주방언의 ‘에’

앞의 <표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주방언에는 일부의 어미나 조사에 붙는 ‘에’가 있다. ‘에’는 연결어미 ‘-난’, ‘-안’, ‘-단’, ‘-어단’ 뒤에 바로 결합될 수 있고, 또한 ‘근’이 결합된 결합체 ‘-어근’, ‘-엉근’, ‘-다근’, ‘-당근’이나 조사 ‘을랑’ 뒤에 ‘근’이 결합된 ‘-을라근’ 뒤에도 결합될 수 있다. 아래 예 (16), (17)은 강영봉(2012)의 것이다.

(16)

가. 예예. 참 이제는 지비서 배추라도 시명노나네 봄나랑 푸지게 나두서 먹쭈마는
바테서 캐어 멩는디 그때야 이서쭈과게. 그냥. (=예예. 참 이제는 집에서 배추
라도 심어서 놓으니까 봄내내 푸지게 나두고서 먹지만 밭에서 캐서 먹는데 그
때야 있었습니까. 그냥.)(16)

13) 강정희(1987)에서는 ‘근’의 ‘그’를 기원적으로 ‘존재’를 나타내는 옛말 ‘견’에서 유래한 것이며 나중에 뜻이 변하여 <가지고>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기원에 대한 생각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근’ 또는 ‘그’에 일정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는 점은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나. 질 이어네 어디 가 해네 정신 출런 보난 어디라령 행으네 온 사르미다 이. (= 길 잃어서 어디 가 해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어디더라고 해서 온 사람이 다 이.)(256)

다. 해썰 아잔 베와가다네 스타 나무난 설러변. (=조금 앉아서 배워가다가 사태 나 버리니까 그만뒤 버렸어.)(163)

(17)

가. 예. 그런 건 업꼬 저 여자애덜 새각씨풀 케어그네 새각씨 거 만들멍해쑈게. (= 예. 그런 것은 없고. 저 여자애들 새색시풀 캐서 새색씨 거 만들면서 했습니다.)(34)

나. 춤 추라 춤 추라 험니께. 심방만축 십영으네 춤 추라 행 영 시므민 까딱까딱. (=춤 취라 춤 취라 합니다. 방아깨비 잡아서 춤 취라 해서 이렇게 잡으면 까딱까딱.)(36)

다. 예. 아 여기서도 건 머금네다. 우리도 할망 둥가다그네 이디 난 돈 술도 둥강 먹꼭 경 해나쑈게. (=예. 아 여기서도 그것은 먹습니다. 우리도 할머니 담가다가 여기 놓아서 몽땅 술도 담가서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15)

라. 예 으페서 저 어른더리 지경 차는 거 보당으네 그치루커문 썩지 말랜허곡. (=아 옆에서 저 어른들이 지켜서 차는 거 보다가 그렇게 하면 싸우지 말라고 하고.)(53)

실제 구술발화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연결어미에 ‘근’만 결합된 예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 ‘에’가 덧붙은 ‘근에’ 형태로 쓰인다. 예를 들어 강영봉(2012)는 8시간 동안의 구술발화를 전사한 것인데, 이 자료에는 ‘근’이 홀로 쓰인 예가 단 한 차례도 쓰이지 않고, 모두 ‘-어근에’, ‘-영은에’ 또는 ‘-다근에’, ‘-당으네’ 등의 결합체로만 나타난다. ‘-영은에’는 ‘-영근에’의 /-기/이 수의적으로 탈락한 형태인데, 강영봉(2012)에서는 ‘-영근에’가 전혀 보이지 않고 모두 ‘-영은에’ 형태로만 쓰였다. 위의 예 (17)의 (나)와 (라)가 이를 보여 준다. 만약 ‘근’이 강영봉(2012)에 서처럼 필수적으로 ‘에’와 어울려 쓰여야 한다면 ‘근에’를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는 연결어미 ‘-난(=으니까)’을 포함한 ‘-언’, ‘-단’에

도 결합되어 (16)과 같이 ‘-난에’, ‘-언에’, ‘-단에’로 쓰일 수 있으므로 ‘근에’는 각각 ‘근’과 ‘에’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¹⁴⁾ 실제로 ‘에’는 ‘-난’, ‘-언’, ‘-단’ 외에 ‘근’을 포함한 ‘-어근’, ‘-영근’, ‘-다근’, ‘-당근’ 뒤에도 결합될 수 있으므로 음성적으로는 /ㄴ/으로 끝나는 연결어미에 결합되어 쓰인다고도 할 수 있다¹⁵⁾.

<표 1>을 보면 ‘근’과 ‘에’의 분포 환경이 부분적으로 상보적임을 알 수 있다. 즉 ‘근’은 ‘-언, -단, -난’에 결합되지 않는 반면 ‘에’는 ‘-영, -당’에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에’는 ‘근’과 함께 결합하여 ‘근에’를 형성하므로 이 경우에는 그 분포가 상보적이지 않다. 만약 ‘근’과 ‘에’의 기능이 같고, 그 분포가 부분적으로 상보적이라면 우리는 두 형태를 하나의 형태소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에’와 같이 함께 결합되는 경우는 마치 ‘설라문에’와 같이 같은 기능의 보조사가 잇따라 결합되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어미 ‘-단’에 ‘에’가 결합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단’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에’가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앞에서 설명한 ‘-

14) 강영봉(2012)에서 8시간 동안의 구술발화 동안 ‘-단/당’, ‘-단에’, ‘-다근에/당은에’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148 : 8 : 70으로서 첨사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빈도를 보였으며, 첨사가 결합하는 경우 ‘근에’가 ‘에’에 비해 9배 가량 더 쓰인다.(-단/3, -당/145, -단에/8, -다근에 /15, -당은에/50, -다근에/3, -당은에/2)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단/1%, -당/65%, -단에/4%, -다근에 /7%, -당은에/22%, -다근에/1%, -당은에/1%와 같다. 반면 강영봉(2012)에서 1시간 35분 동안의 구술발화 동안 ‘-언/9/4%, -영/160/66%, -어그네~어그녕/37/15%, -영으네~영으녕/32/13%, -어가지고 3/1%, -어서/1/0%’의 사용 빈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언’과 ‘-영’의 경우 첨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70%로서 첨사가 결합한 경우인 28%에 비해 약 2.5배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단’, ‘-당’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비율에 해당한다. 또한 ‘-언’에 첨사 ‘에’가 결합되는 예가 확인되지 않아서 ‘근에’의 사용 비율이 ‘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단’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에 첨사 ‘에’가 결합되어 ‘-단’으로 쓰이는 비율이 4%를 기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언’에는 ‘-단’에 비해 그 사용 빈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15) 그러나 ‘에’는 ‘앵’으로도 변이되어 ‘-어근앵’, ‘-영은앵’, ‘-다근앵’, ‘-당은앵’과 같이 쓰이기도 하고, 이때에 ‘에’가 한 차례 더 쓰여 ‘-앵에’와 같은 형태 결합이 가능하기도 하다. 아래 예가 이를 보여 준다. ‘-앵’에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에’가 /ㄴ/뿐만 아니라 /ㅇ/ 다음에도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ㅇ/ 다음에 오는 경우는 ‘근앵’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에’는 일반적으로 /ㄴ/ 다음에 온다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

(예) 밥은 아니우다마는 이 떡이라도 먹어근앵에 감서.

당근’의 ‘근’과 같은 경우이다. 현평효/강영봉(2011)에서는 ‘-단에’에 대해 ‘그 동작이 계속되면 뒤에 좋지 못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뜻으로, 앞 동작을 경계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당근’이나 ‘-당은’의 기술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단이’가 ‘-당근’과 마찬가지로 표준어 ‘다가는’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며, 이로써 여기에 포함된 ‘에’는 ‘근’과 마찬가지로 표준어의 보조사 ‘는’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단에’의 ‘에’가 별다른 뜻 없이 단순히 선행하는 연결어미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절의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강영봉(2012)에서 확인된 예를 보기로 하자.

(18)

가. 아, 거 해방 후엔 췌가 경, 잘, 췌값 잘 주고 허다네 아, 막 췌가비 무전냥, 뭇 춤 프라먹찌 모덜 쟁도 그런 무진 때가 이서나쑤다게. (=아, 거 해방 후에는 소가 그렇게 잘, 소 값 잘 주고 하다가 아, 막 소 값이 무더서요, 뭇 참 팔아 먹지 못할 정도 그런 무덜 때가 있었었습니다.) (135)

나. 헤셀 아잔 베와가다네 스타 나부난 설러면. (=조금 앉아서 배워가다가 사태 나 버리니까 그만뒤 버렸어.) (163)

다. 예, 누에는 기자 저 질환 훈 저, 훈 해 질환쑤. 훈 해 질화네 우리 찌거름오름, 불근오르메 강 뽕 헤다네 문 주멍. (=예, 누에는 그저 저 길러서 한 저, 한 해 길렀지. 한 해 길러서 우리 저 검은오름, 붉은오름에 가서 뽕 헤다가 몽땅 주면서.) (165)

위의 예에서 ‘에’는 단절의 담화표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역시 단절의 담화표지로 쓰이는 표준어의 ‘는’과 같다.

이런 사실에 근거한다면, ‘근’과 ‘에’는 부분적으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며 그 기능이 같은 동일한 형태소의 변이형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법적 기능은 표준어의 ‘는’에 대응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조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별다른 뜻 없이 선행하는 연결어미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른바 단절

의 담화표지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른 방언에서도 침사 ‘에’는 확인된다. 앞에서 언급한 예 (3다)의 ‘설라무네’는 ‘설라문’에 ‘에’가 결합된 것이다. 글쓴이는 이기갑(2003)에서 이 ‘에’를 보조사 ‘은’에서 그 형태가 바뀐 것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다. 즉 ‘설라무네’를 ‘서-을람-은-은’과 같은 형태소의 결합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단절의 담화표지 ‘을랑’과 ‘느’이 반복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사실 예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주방언에서도 ‘설란’과 ‘으란’이 겹치거나 ‘설란’과 ‘느’이 중복되는 현상은 쉽게 찾아진다. 담화표지 ‘느’이나 ‘으란’ 또는 ‘설란’ 등이 겹쳐 사용되는 것은 육지 방언이나 제주방언에서 쉽게 확인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 방언의 ‘근에’를 동일한 담화표지의 반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6. 결론

제주방언에서 ‘근에’는 일부의 연결어미(‘-어’, ‘-엉’, ‘-다’, ‘-단’)에 결합되어 쓰인다. ‘근에’는 ‘근’으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근에’는 ‘근’과 ‘에’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연결어미 ‘-난, -언, -단’에는 ‘에’가 홀로 결합 가능하므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근’과 ‘에’가 결합되는 연결어미의 목록은 대체로 표준어를 비롯한 육지어에서 단절 기능을 담당하는 담화표지 ‘느’이나 ‘을랑’이 붙는 연결어미의 목록과 일치한다. 또한 이들 침사는 결합하는 연결어미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 역시 담화표지 ‘느’이나 ‘을랑’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제주방언의 일부 연결어미에 결합되는 ‘근’과 ‘에’는 육지어 ‘느’이나 ‘을랑’에 대응하는 단절의 담화표지로 그 성격을 규정 지을 수 있다. ‘근’과 ‘에’는 그 분포가 대체로 상보적인데 이러한 분포를 고려하면 이 둘은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근에’처럼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같은 기능의 담화표지

‘느’과 ‘을랑’이 겹치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제주방언에서는 ‘근’과 ‘에’ 외에 표준어의 영향을 받은 연결어미 ‘-어서’나 ‘-다가서’, ‘-어 가지고’ 등에 결합되는 ‘으란’, ‘-으멍’ 다음에 결합되는 ‘느’이 각각 단절의 담화표지로 기능한다. 그 결과 제주방언에서는 연결어미의 종류에 따라 ‘근’, ‘에’, ‘느’, ‘으란’과 같은 네 종류의 단절 표지가 사용되는 셈이다. 여기서 ‘느’과 ‘으란’은 육지어에서도 확인되는 담화표지이므로, 제주방언 특유의 것은 ‘근’과 ‘에’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정희(1987), <제주방언의 접속어미와 동작성 어미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pp.521-541.
- 강정희(1994), <방언 분화에 의한 형태 분화 - 제주방언의 ‘-이랑’과 문헌어의 ‘-으란’을 중심으로>, 《이화어문》 13, 이화어문학회, pp.1-21.
- 국립국어연구원(1997),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1)》, 국립국어원.
-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2003),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 문순덕(2005), <제주방언의 간투 표현>, 《한글》 269, 한글학회, pp.161-188.
- 문순덕/김원보(2012),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메’ 연구>, 《언어학연구》 17-1, 한국언어연구학회, pp.27-42.
- 양창용(2009), <제주방언 ‘-양’에 대한 통사-담화론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69, 한국언어문학회, pp.5-28.
- 이기갑(1998), <‘-어/어서’의 공시태에 대한 역사적 설명>,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pp.101-121.
- 이기갑(2001), <사태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느’과 ‘을랑’>, 《국어학》 37, 국어학회, pp. 149-175.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효상(2005), <Topic Marking as a Framing Strategy : an interplay of semantics and

pragmatics>, 미발표 원고.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제주도(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1988),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림대학교국문과(1989), 《강원 구비문학 전집(1)-홍천군 편》, 한림대학교 출판부.

한진건(2000), 《륙진 방언 연구》, 민족출판사, 북경.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현평효/강영봉(2012),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

홍종림(2001), <제주방언 연결어미의 '-n-', '-ŋ'에 대하여>, 《국어학》 38, 국어학회,
pp.271-304.

황대화(1986), 《동해안 방언 연구》,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평양.

황대화(1998), 《조선어 동서 방언 비교 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Haiman(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54-3.

Discourse Markers 'geun' and 'e' in the Jeju dialect of Korea

Lee Kigap(Mokpo National University)

In spoken Korean, particle 'neun' attached to the connective endings which represent continuous events can function as a discourse marker to emphasize separation of conjuncts and continuity of events. The Jeju dialect has several separation discourse markers, among which 'euran' is used for the non-native connective endings such as '-eoseo', '-goseo' and '-dagaseo' and 'neun' for the native connective ending '-eumeong'. Besides these markers, there are native separation markers 'geun' and 'e' attached only to the native connective endings '-eon/eong', '-dan/dang' and '-nan'.

Keywords: discourse marker, separation marker, Jeju dialect, separation of conjuncts, continuity of event

이기갑

주소: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534-729]

전자우편주소: kiglee@mokpo.ac.kr

접 수: 2013. 4. 30.

수정본 접수: 2013. 6. 5.

게 재 확 정: 2013. 6. 12.